

# 만 3세 아동에 대한 빈곤, 부모변인, 가정환경 및 아동발달과의 관계

곽 금 주                      김 정 미\*                      유 제 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강남대학교 교양학부

본 연구는 만 3세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양육 스트레스, 및 가정환경 자극과 아동발달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적합한 설명 모델을 탐색하고 확정된 모델에 이들 변인과 빈곤 환경을 적용하여 변인들의 영향력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대상은 서울 및 일부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만 3세 아동 446명이며, 그 중 205명은 빈곤 집단 아동이고 241명은 비빈곤 집단 아동들이다. 구조 방정식 모델의 접근방식을 사용하여 이론적으로 적합한 모델을 탐색한 결과 통합 모델이 가장 우수한 모델로 확인되었다. 통합 모델로 빈곤과 비빈곤 집단에 따라 교차 적용한 결과 부모양육 스트레스는 빈곤으로 인해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환경 자극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상호작용 영향이 있으며 아동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따라 부모양육 스트레스가 비빈곤 집단에게 어떠한 보호요인들이 작용하는지에 대한 추후연구가 제안되었다.

주요어 : 빈곤 아동,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양육 스트레스, 가정환경 자극, 경로분석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된 계층간, 지역간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로 취약 계층은 빈곤이 급속히 확산되게 되었는데 IMF의 한파로 실직과 빈곤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가정 아동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2003년 자료

에 의하면 실제로 빈곤아동의 숫자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거의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혜원, 2004).

우리가 사용하는 빈곤에 대해 정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대체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 교신 저자 : 김정미, E-mail: jeongmeex@hanmail.net

\* 이 논문은 2005년도 학술진흥재단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5-005-J09502).

으로 구분되며, 그 외에 행정적·법적 빈곤, 사회·문화적 빈곤으로 구분할 수 있다(서유경, 2002).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빈곤 용어는 소득 수준에 따라 가정의 수입을 비교함으로써 빈곤을 개념화하는 상대적 빈곤 개념을 의미한다.

그러나 빈곤은 아동에게 가장 큰 의미로 작용하는 경제적 박탈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및 심리적 문제로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저소득층 아동들이 속해있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주변 환경은 사고의 위험과 함께 문화적 소외, 정서적 발달이 장애 등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빈곤층은 낮은 생활수준 및 가족 삶의 기회를 제약받게 됨으로서 주류사회로부터 격리되며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적 통합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빈곤가정이 지니는 문제는 경제적 궁핍, 생활환경, 가족관계, 심리적 박탈을 나타내며 부모의 심리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다른 가족구성원의 반응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 상황을 악화시키고, 역기능적인 가족관계와 바람직하지 않은 아동양육을 통해 아동의 행동이나 사회·정서적 기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서유경, 2002; Conger et al., 199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소득과 이로 인한 가정환경은 아동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뿐만 아니라 부모의 심리상태와 아동에게 제공하는 자극 수준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 경로로 아동발달 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아동 초기에 이와 같은 환경은 건강한 발달을 방해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들은 저소득으로 인한 빈곤가정은 아동의 언어발달(Whiteman & Deutsch, 1968), 지능(Duncan, Brooks-Gunn, & Klebanov, 1994), 운동(Petterson, & Albers, 2001), 정서 및 사

회적 기능(Bradley, 1995)등의 다양한 발달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가정의 저소득 수준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살펴보면, 소득 자체가 아동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가정의 저소득이 부모나 환경의 다른 매개변인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부모나 환경 변인이 궁극적으로 아동발달과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Gershoff, Aber, Raver, & Lennon, 2007).

이와 같이 가정의 빈곤 상태와 관련하여 부모변인에 따라 아동발달에 미치는 매개 변인 간의 경로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저소득층 가정은 가정내의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부모의 정신적인 건강과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아동에게 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Conger와 그 동료들의 연구(Conger, Ge, Elder, Lorenz, & Simons, 1994; Conger, Patterson, & Ge, 1995)에서 보면, 빈곤으로 인한 경제적 압력이 부모의 양육 행동 및 우울감과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나타냄으로서 아동의 외현적 문제로 이어졌다.

Mussen(1978)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들의 연구 결과 부모의 절대적, 거부적, 권위적, 통제적 양육태도에서 자란 자녀들의 경우 사회적 적응과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으며, 새로운 자극에 대해 두려움이나 불안을 갖게 되며, 창의성 및 자주성의 결여와 언어발달의 지체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자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고려하지 않는 부모의 자기중심적인 성격과 사회의 규범과 관습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회 가치지향성의 태도가 부적응 행동 및 심리적 장애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어머니들은 상대적으로 자

신을 무기력하게 느끼고 보다 더 강압적인 훈육방식을 나타내며, 심지어 자녀의 행동에 대해 신체적인 벌을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그들의 아이들과의 관계 맺기를 거부하고 아이들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는 경향이 있었다(Bugental, Olster, & Martorell, 2002; Gershoff, et al., 2007).

빈곤에 따른 가정환경 자극은 구체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쳐 아동과의 온정적인 상호작용, 가정의 물리적인 조건 상황, 학습의 기회를 방해하며 궁극적으로 아동의 인지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Brooks-Gunn, Klebanov, & Liaw, 1995). 예컨대, 부모가 아동에게 책, 장난감을 사주거나 좋은 보육기관을 다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과 또한 아동과 함께 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아동의 인지적 능력에 필요한 잠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빈곤한 환경에 처한 부모는 저소득으로 인하여 아동에게 경제적, 시간적으로 투자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다(Guo & Harris, 2000; Linver, Brooks-Gunn, & Kohen, 2002).

특히 발달적으로 취학 전 시기에 아동에게 질 높은 자극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은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과 언어능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으며(Howes, 1988; Hofferth & Phillips, 1991;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7, 1998; Ramey & Ramey, 1998), 이 시기에 양육의 질적 수준은 아동초기 IQ지수와 상관이 있으며, 또한 부모의 반응적이고 민감한 양육 태도는 아동의 인지 발달 능력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요건들이다(Ramey, Yeates, & Short, 1984; Wasik, Ramey, Bryant, & Sparling, 1990). 더욱이 아동 초기에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 조건에 노출되는 것은 이후 시기 아동의 공격성, 학업성취, 문제행동과 같은 부적응행동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들 수 있다(Guerra, Huesmann, Tolan, Van Acker, & Eron, 1995; Simons, Johnson, Beaman, Conger, & Whitbeck, 199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소득과 이로 인한 가정환경은 아동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뿐만 아니라 부모의 심리적 상태와 아동에게 제공하는 자극 수준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 경로로 아동발달 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아동 초기에 열악한 환경은 건강한 발달을 방해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동 초기에 속하는 만 3세 아동을 대상으로 빈곤과 관련된 변인으로 밝혀진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양육 스트레스, 및 가정환경 자극과 아동발달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적합한 설명 모델을 탐색하고, 확정된 모델에 이들 변인이 빈곤에 따라 적용하였을 때 변인들의 영향력 경로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아동발달과 빈곤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외국의 사례들이며, 우리나라에서의 빈곤아동에 관한 연구는 소득과 이에 관련한 물리적 조건 또는 환경의 실태와 현황 분석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인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빈곤과 직접 상관이 있는 물리적 환경에 따른 아동의 심리발달 측면과 부모의 심리적 문제 간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겠다는데 의미가 있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서울 및 일부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만 3세 아동 446명이었다. 본 연구 대상 아동은 빈곤과 비빈곤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두 집단의 분

류 기준은 아동이 생계비 지원을 목적으로 한 보육료 지원대상 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었다. 전체 대상 중 205명은 생활비 지원형태로 100%에서 40%까지 보육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아동이고 나머지 241명은 생계목적으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아동들이다. 대상자는 해당 지역 어린이 집 또는 보건소를 통하여 모집되었다. 이와 같은 경로로 모집된 아동은 560명이었으며 대상자 정보와 자료가 누락된 84명을 제외한 대상자는 최종 476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보고로 설문을 작성한 대상자만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446명을 선정하였다. 대상아동과 어머니에 관한 정보는 표 1에 제시하였다.

### 측정도구

#### 부모양육스트레스(PSI)

아동과 부모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평가하기 위하여 Abidin(1990)의 PSI

표 1. 대상자 정보(N=476)

	<i>M(SD)</i>		
	전체	비빈곤 (n=205)	빈곤 (n=241)
어머니			
연령	33.6(3.9)	33.9(3.5)	33.2(4.3)
학력			
중졸이하	5(1.1)	-	5(2.4)
고졸	163(36.5)	33(13.7)	130(63.4)
대졸이상	257(57.7)	200(82.9)	57(27.8)
아동(빈도)			
남	220	124(51.5)	96(46.8)
여	226	117(48.5)	109(53.2)

척도를 모체로 이경숙, 김현경 및 신윤오(2000)가 한국형으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48문항으로서 부모영역과 아동영역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아동영역은 24개 문항 4개 요인으로서, ‘부모강화’, ‘수용성’, ‘주의산만성’, ‘요구성’으로 구성되었으며, 부모영역은 24개 문항, 5개 요인으로서 ‘역할제한’, ‘우울감’, ‘사회적 고립’, ‘건강’, ‘배우자와의 관계’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되며, 한국형 부모양육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 지수는 아동영역이 .81이며, 부모영역이 .83이었다.

#### 가정환경자극척도(EC-HOME)

가정환경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Caldwell과 Bradley(2003)가 개발한 유아용 가정환경자극척도(EC-HOME)를 김정미와 곽금주(2007)가 한국 대상으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부모와의 면접 또는 부모 보고에 의해 작성되었다. 한국판 EC-HOME은 총 30문항 6요인 즉, ‘학습도구’, ‘학업적 자극’, ‘반응성 자극’, ‘물리적 환경’, ‘언어성 자극’, ‘도구 다양성’으로 구성되었다. 한국판 EC-HOME의 신뢰도 계수는 .77이었다.

#### 부모의 양육태도(PARCQ)

어머니의 양육 스타일을 측정하기 위하여 Rohner(2004)가 개발한 척도를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온정/애정, 공격성/적대감, 무시/무관심, 거부, 그리고 통제의 5개 요인에 대해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29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63이었다.

### 아동발달(K-CDI)

아동의 발달적 기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Ireton(1992)이 개발하였고, 김정미와 신희선(2006)이 국내에서 표준화한 K-CDI 아동발달 검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30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하위척도는 사회성, 자조행동,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표현언어, 언어이해, 그리고 글자와 숫자 영역의 270항목과 아동의 증상과 문제에 관한 30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95이었다.

###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먼저, 만 3세 아동에 대해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양육 스트레스 및 가정환경 자극과 아동발달 간의 영향력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론적으로 가능한 모델을 탐색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모델을 토대로 경로를 추가한 모델 찾기 과정을 시행하였다. 각 단계의 검증은 구조 방정식 모델의 접근 방식을 사용하였고 특히, 두 번째 단계에서는 수정 지수(modification index)와 자유도의 증감에 따른 부합치들을 등지관계(nested relationship)의 비교를 통해 판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특정 경로의 수정을 거쳐 최종 모형으로 확정된 통합 모델을 빈곤아동 집단과 비빈곤아동 집단에 따라 교차 적용하는 중다 집단비교(multi group analysis)를 추가하여 각 변인들에 대한 경로에 각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 절차에 따라,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두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변인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적합한 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

조방정식 모델 접근법의 컴퓨터 프로그램인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 Version 4.01(Arbuckle, 2000)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적합한 경로모델을 비교 검증하는 모수추정방식을 최대우도 추정법(Maximum Likelihood method: ML)을 사용하였다. 공변량 행렬(covariance matrix)을 사용하면 변산도가 변할 때 상관행렬(correlation matrix)보다 미지수의 계산이 더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인들이 모두 동일한 척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측정단위를 표준화하기 위해 상관행렬을 사용하였다.

### 결 과

측정 변인들 즉, 부모의 양육태도(온정, 적대감, 무관심, 거부, 통제), 부모양육 스트레스(부모영역, 아동영역), 가정환경 자극(학습도구, 학습자극, 물리적 환경, 반응성, 경험다양성, 언어적 자극) 그리고 아동발달(사회성, 자조행동,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언어표현, 언어이해, 글자, 숫자)간의 상관행렬 계수와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표 2와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 의하면, 빈곤아동 집단과 비빈곤 아동 집단 간의 부모 양육태도, 가정환경 자극, 아동발달 점수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 하위항목을 보면, 비빈곤 집단의 부모는 보다 온정적이었고, 빈곤 집단 부모는 보다 적대적이고 무관심하며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내었다. 가정환경 자극과 아동발달은 모든 하위영역에서 비빈곤 집단이 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부모양육 스트레스는 빈곤아동 어머니들이 비빈곤아동 어머니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p > .05$ ).

표 2.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행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PSI:부도영역	1																			
2.PSI:아동영역	.60***	1																		
3.PARQ:온정	-.34***	-.35***	1																	
4.PARQ:적대	-.40***	-.38***	.47***	1																
5.PARQ:무관	-.38***	-.36***	.56***	.55***	1															
6.PARQ:거부	-.43***	-.43***	.40***	.57***	.50***	1														
7.PARQ:통제	-.22***	-.20***	.04	.26***	.13**	.28***	1													
8.HOME:학습도구	-.00	-.08	.28***	.12*	.18***	.03	.01	1												
9.HOME:학업적지구	-.19***	-.11*	.26***	.14**	.25***	.14**	.03	.18***	1											
10.HOME:반응성	-.14**	-.12*	.31***	.18***	.21***	.12*	.07	.22***	.27***	1										
11.HOME:물리적환경	-.13**	-.11*	.21**	.12*	.19***	.02	.08	.21***	.19***	.27***	1									
12.HOME:언어적지구	-.04	-.13**	.29***	.09	.19***	.11*	.05	.39***	.37***	.29***	.26***	1								
13.HOME:도구대양성	-.12*	-.10*	.10*	.01	.15***	.01	.04	.24***	.26***	.12**	.14**	.14**	1							
14.사회성	-.24***	-.36***	.34***	.22***	.24***	.18***	-.04	.29***	.22***	.26***	.18***	.29***	.13**	1						
15.자조행동	-.15**	-.15**	.17**	.17***	.12*	.13**	-.03	.21***	.11*	.23**	.07	.13**	.07	.46***	1					
16.대근육운동	-.08	-.08	.12	.12**	.10*	.06	.01	.26***	.07	.15***	.14**	.12*	.04	.27***	.39***	1				
17.소근육운동	-.11*	-.19***	.27***	.19***	.16***	.11*	.03	.43***	.25***	.24***	.17***	.24***	.13**	.43***	.45***	.40***	1			
18.언어표현	-.10*	-.18***	.26***	.15**	.20***	.11*	-.05	.24***	.30***	.33***	.16***	.26***	.14**	.50***	.37***	.33***	.48***	1		
19.언어이해	-.14**	-.19***	.29***	.21***	.22***	.11*	-.01	.37***	.28***	.31***	.25***	.30***	.14**	.52***	.43***	.40***	.55***	.79***	1	
20.글자	-.05	-.17***	.20***	.18***	.21***	.06	-.06	.28***	.20***	.20***	.15**	.40***	.07	.24***	.20***	.16***	.40***	.36***	.41***	1
21.숫자	-.11*	-.17***	.21***	.17***	.15**	.08	-.07	.28***	.29***	.21***	.20***	.32***	.06	.29***	.30***	.17***	.45***	.46***	.50***	.66***

\*\*\*  $p < .001$  \*\*  $p < .01$  \*  $p < .05$

표 3. 측정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N=446)

	M(SD)			t
	전 체	비빈곤 (n=241)	빈곤 (n=205)	
<b>부모양육 스트레스(PSI)</b>				
부모영역	44.4(12.1)	43.5(11.1)	45.5(13.3)	-1.68
아동영역	45.0(10.4)	44.5(9.7)	45.6(11.2)	-1.05
<b>부모 양육태도(PARQ)</b>				
온정	28.8(2.9)	29.4(2.5)	28.1(3.0)	4.88***
적대감	12.9(3.1)	12.4(3.1)	13.5(3.1)	-3.80***
무관심	10.3(2.6)	9.8(2.4)	10.7(2.8)	-3.74***
거부	6.3(2.0)	6.2(1.8)	6.4(2.1)	-1.46
통제	13.5(1.6)	13.3(1.7)	13.7(1.6)	-2.34*
<b>가정환경 자극(HOME)</b>				
학습도구	6.3(1.1)	6.6(1.0)	5.9(1.3)	6.36***
학업적자극	3.7(1.0)	3.8(1.0)	3.6(1.0)	3.89***
반응성	3.8(1.5)	4.4(1.4)	3.2(1.4)	8.69***
물리적환경	4.6(1.2)	5.0(1.0)	4.0(1.2)	9.66***
언어적자극	2.8(1.1)	3.1(1.0)	2.5(1.1)	6.00***
도구다양성	2.0(1.0)	2.0(1.0)	1.9(1.0)	3.71***
<b>아동발달(K-CDI)</b>				
사회성	31.0(4.1)	31.8(3.9)	30.0(4.0)	4.79***
자조행동	32.9(3.7)	33.4(3.4)	32.4(4.0)	2.77**
대근육운동	26.3(2.3)	26.6(2.2)	26.0(2.4)	2.96**
소근육운동	26.3(3.2)	26.9(2.9)	25.5(3.4)	4.76***
표현언어	44.6(5.6)	4.9(4.7)	43.0(6.1)	5.73***
언어이해	45.0(5.5)	46.4(4.5)	43.4(6.0)	6.25***
글자	7.6(5.7)	8.4(6.1)	6.7(5.0)	3.23***
숫자	8.7(2.8)	9.2(2.8)	8.0(2.7)	4.25***

\*\*\*  $p < .001$ , \*\*  $p < .01$ , \*  $p < .05$

### 아동발달에 적합한 이론적 모델 비교

표 4에 기존의 연구와 문헌 개관을 통해 제안된 총 네 가지 모델들의 부합지수를 제시하였고 그림 1에서 그림 4에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태도가 아동발달에 끼치는 경로를 모든 모델에 적용하였다. 모델 1은 경제적 압력 등 부모가 받는 스트레스와 빈약하고 도전적이지 않은 가정환경이 밀접한 상호 영향을 줄 수 있음(Conger, Patterson, & Ge, 1995)을 고려하였다. 빈곤으로 인한 생활 스트레스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소극적이고 통제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Conger, et al., 1994)을 모델 1에 포함한 것에 비해, 모델 2에서는 부모가 받는 스트레스와 양육 태도의 상호 영향을 고려하였다. 부모가 받는 스트레스는 가족구성원의 생활원리와 행동규제 방식을 좌우하기도 하지만(Phares & Compas, 1990) 통제가 많고 거부적인 경직된 자녀 양육 방식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스트레스 원인으로 작용하여 의사소통의 양과 질을 감소할 수도 있다는(Brooks-Gunn, & Duncan, 1997)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스트레스와 양육태도가 상호작용하여 빈약하고 적절하지 않은 가정환경을 구성한다는 모델 2를 가정하였다.

부모의 경직되고 적대적인 양육방식은 부모 자신에게도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스트레스를 증폭시키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Bugental, et al., 2002). 당연히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해 반응적이지 않은 환경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모델 3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어 구성하였다. 모델 4는 양육 스트레스에 주목하였다. 양육과정에서 야기되는 스트레스가 적대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초래하고(Gershoff, et al., 2007) 동시에 탈진하고

표 4. 각 검증 모델들의 부합도

검증 모델	df	$\chi^2$	GFI	AGFI	RMSEA	PFI	CFI
모델 1	181	472.538	.868	.861	.095	.593	.857
모델 2	181	472.538	.902	.900	.082	.627	.902
모델 3	181	472.538	.899	.891	.089	.611	.893
모델 4	181	472.538	.908	.905	.077	.643	.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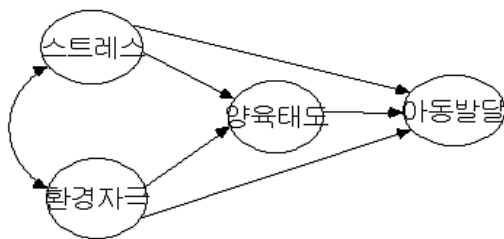


그림 1. 모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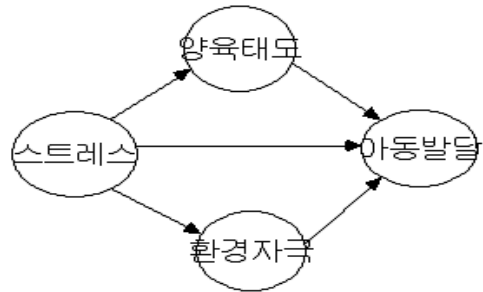


그림4. 모델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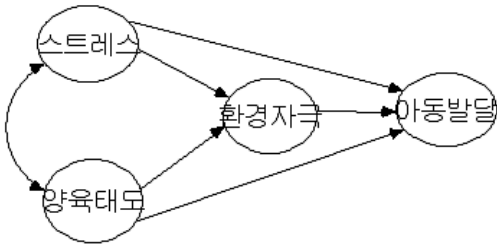


그림 2. 모델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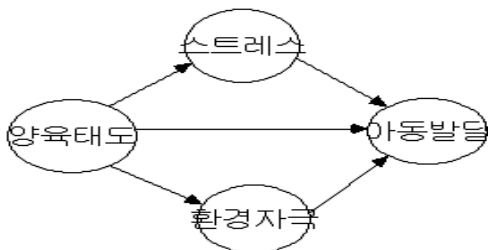


그림 3. 모델 3

무기력해진 부모가 빈약하고 무반응적인 가정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구성된 네 가지 모델들을 공변량 구조분석으로 비교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델 2와 모델 4는 절대 부합치와 비교 부합치로 볼 때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양호한 모델이었다. 그러나 모델 2를 제외하고는 근사평균 자승오차(RMSEA)에서 적합 수준인 .08 이상이었고 특히, 모델 1은 부적합의 기준인 .10에 근접하고 초과하고 있었고 절대 부합치(GFI, AGFI)의 일반적인 기준이 .90 이하이어서 적합성이 낮은 모델임을 알 수 있다. GFI는 예측된 변량-공변량 행렬이 실제 변량-공변량 행렬을 설명하는 비율로서 .90 이상이면 좋은 모델로 평가한다. 이 값은 자유도가 낮아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자유도를 고정한 수정된 GFI가 AGFI이다.  $\chi^2$ 값도 중요한 비교 준거가 될 수 있



다. 이 값은 실제 관찰된 공변량 행렬(S)과 모델에 의해 예측된 공변량 행렬( $\Sigma$ )의 차이를 나타낼 때 쓰이는 값으로 이 값이 커서 유의미하면 실측모델과 예측모델의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 $p < .05$ )하여 적합하지 않은 모델이라고 판단된다. 보통  $\chi^2$  값이 자유도의 두 배를 넘지 않으면  $p < .05$  라도 적합한 모델로 평가하지만 표본의 크기가 크고 측정 변인이 많을 경우 실제 모델에 적합하여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차이를 과대평가하게 되는 위험도 있다. PFI는 추정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모델을 비교하는 지수로서 수용 가능한 준거는 .60 이상이다. CFI는 자유도에 따른 오차를 감소시켜 그 영향을 배제하고 모델을 비교하는 지수로서 .90이 상을 우수한 모델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 4와 모델 2가 적합한 모델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모델의 순으로 보면 모델 4 > 모델 2 > 모델 3 > 모델 1임을 알 수 있다.

### 최종 수정 모델

가장 적합한 모델로 확인된 모델 4에서 부모 양육태도와 가정환경 자극이 상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Brooks-Gunn, & Duncan, 1997; Neisser et al., 1996; Ramey, et al., 1984)가 제시된 바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이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를 추가해 보았다. 그 수정된 모델은 그림 5와 같다.

추가된 경로계수는 양육태도가 환경자극으로 가는 경로가 .164로, 그리고 환경자극이 양육태도로 가는 경로가 .1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로들이 추가된 모델은 모델 4와 등지 관계(nested relationship)이기 때문에 카이제곱 차이검증과 CFI 값으로 모델의 우수성을 판정할 수 있다. 카이제곱 차이검증은 자유도의 상실(작은 모델에서 큰 모델로)에도 불구하고 예측모델과 실재 모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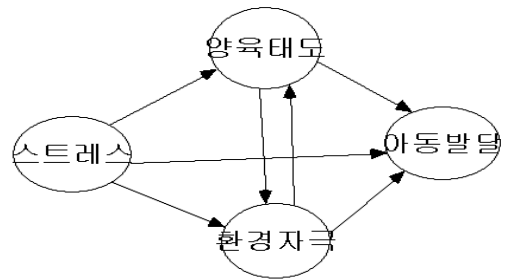


그림 5. 수정 모델 1(모델4에 대한 수정모델)

차이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모델 4에서 부모 양육태도와 가정환경 자극의 상호 작용경로가 추가되는 과정(수정모델)에서 자유도의 2가 감소하였다(181-179=2).  $\chi^2$  값의 차이는 422.235 - 408.124=14.111이고 이는 자유도 2의 .05 (양방)수준에서의  $\chi^2$  값 임계치인 5.99 이상 감소하였다. 따라서 이 경로가 추가되면서도 이에 상응할 만큼의 부합도가 증가한 것이므로 수정된 모델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수정된 모델(편의상 수정 모델 1로 지칭함)에서는 부모양육태도에서 아동발달로 가는 경로 추정치가 Arbuckle(2000)이 제안한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의 기준인 4를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다시 이 경로를 제외한 수정된 모델(수정 모델 2)을 수정 모델 1과 비교할 필요가 있었다. 비교 부합치(CFI)에서는 두 모델의 차이가 .01이상이면 간명모델(자유도가 큰)을 선택하게 되어있다(Williams & Podsakoff, 1989). 본 연구의 수정모델 1과 경로를 삭제한 수정 모델 2의 비교부합치의 차이가 .923-.911=.012로 나타나 간명한 모델인 수정 모델 2(최종 모델)를 채택해야 한다. 경로 추정치를 포함한 최종 수정 모델 2는 그림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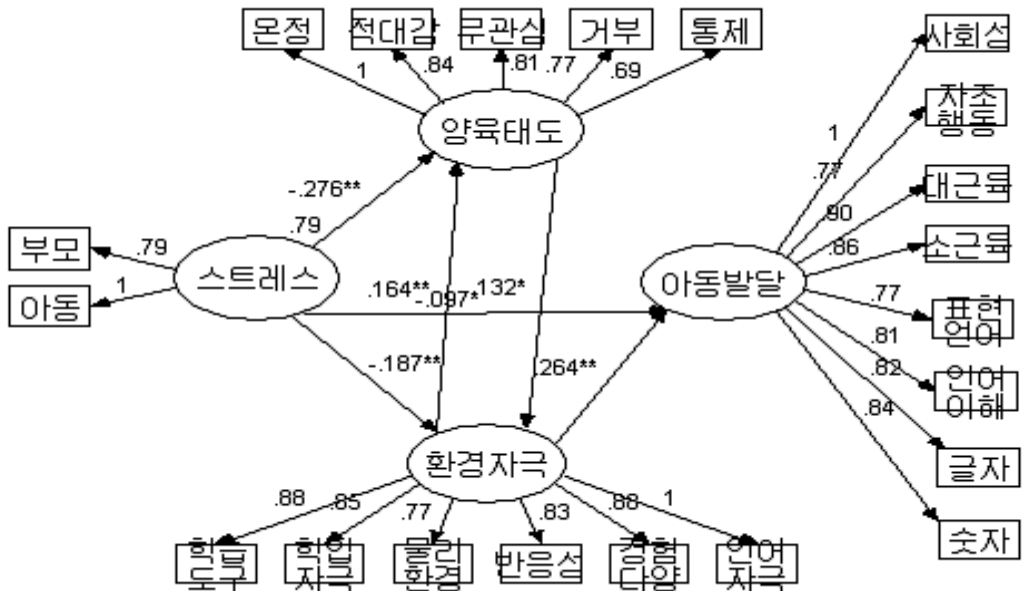


그림 6. 수정 모델 2(최종 모델)

### 빈곤에 따른 주요 변인 비교

이상의 모델 검증 과정에서 적합한 모델로 확정된 최종모델(그림 6. 참조)을 빈곤가정 집단과 비빈곤 가정 집단에 따로 적용한 후 경로 추정치의 유의성에서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비 빈곤 집단(245명)의 경우 부모양육 스트레스에서 아동 발달로 가는 경로만이 -.097에서 -.074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p > .05$ ).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 적은 비빈곤 가정에서는 양육스트레스가 있더라도 아동의 제반 발달 영역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되는 결정적인 변인이며 심리적으로 여유가 없는 이러한 부모들이 아동 발달에 필요한 긍정적인 자기에 소홀하게 되는 일반적인 과정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스트레스에 직면한 비빈곤 집단이 어떠한 보호 요인들을 활용하는 지는 추후 연구에서 흥미 있는 주제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만 3세 아동에 대해 부모의 양육 태도, 부모양육 스트레스, 가정환경 자극 및 아동 발달 점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고, 확정된 모델을 빈곤에 따라 적용하여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발달에 미치는 변인과 영향력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부모변인과 가정환경 변인을 포함하여 적합한 설명 모델을 탐색해 보았다. 그 결과, 부모변인 중 부모의 스트레스변인이 아동발달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탐색되었으며, 환경자극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상호작용 영향이 있으며 아동발달에 직접적 영향을 설명하는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Brooks-Gunn & Duncan, 1997; Neisser et al., 1996; Ramey, et al., 1984). 특히 많은 선행연구들은 물리적 환경은 빈곤에 1차적인 영향력이 있으며 부모의 심리적 변인과 상호작용하여 아동발달에 영향을 주는 매개 변인임을 증명하였다. 예를 들어, 부모의 경제적 수준은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영향 뿐 아니라 경제적 압박과 긴장으로 인한 부모의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쳐 아동과의 온화한 상호작용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궁극적으로 아동의 문제행동과 인지 등 발달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순환적 관계가 형성된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 확인한 최종 모델을 적용하여 빈곤가정 집단과 비 빈곤 가정 집단에 따라 경로 추정치의 유의성에서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보았다. 적합한 모델로 확인된 최종모델로 부모변인(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양육 스트레스)과 가정환경 변인(가정환경 자극)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경로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는 가정환경 자극과 상호작용을 나타내었으나 부모양육 스트레스는 아동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Bugental, et al., 2002; Conger et al., 1992). 즉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긴장상태는 부정적 감정 상태를 유발하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아동에 대한 부모역할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이다 (Gershoff et al. 2007). 따라서 빈곤 환경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건강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가 빈곤한 가정환경에 있는 여아의 발달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환경 수준은 여아의 경우 언어 발달에 영향이 있었으며, 남아의 경우 부모의 반응성 자극이 아동발달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금주, 유제민, 김정미, 2007). 그러나 빈곤과 성차 간의 관련성에 대하여 빈곤은 내재화 경향이 있는 여아에게 더 위험한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또는 외현화 경향이 있는 남아에게 위험한 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심층연구를 통하여 좀 더 분석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빈곤으로 인한 가정환경 변인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환경적 자극은 부모 변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상호작용이 있으며, 아동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Brooks-Gunn, et al., 1995; Guo & Harris, 2000; Linver et al., 2002; Yeung, Linver, & Brooks-Gunn, 2002).

요컨대, 최종 모델로 적용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부모양육 스트레스에서 아동 발달로 가는 경로만이  $-0.097$ 에서  $-0.074$ 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 $p > .05$ ).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 적은 비빈곤 가정에서는 양육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아동의 제반 발달 영역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저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되는 결정적인 변인이며 이와 같이 심리적으로 약한 부모들은 예컨대, 강압적 훈육, 신체적 체벌 등을 사용하는 등 아동발달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예컨대 함께 상호작용하거나 반응적 자극을 제공하는 등의 긍정적 자극에 소홀하게 되어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만 3세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변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트레스 그리고 가정환경 자극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력 관계를 탐색해 보고, 이러한 통합모델을 빈곤아동과 비빈곤아동 집단에 적용하여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물리적인 환경 변인으로서 가정환경 자극과 심리적인 대응 변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정환경 자극과 부모의 양육태도의 순환적인 상호영향을 확인하였다. 둘째, 아동 발달은 스트레스를 받는 부모의 간접적인 영향과 스트레스 노출에 따른 직접적인 노출의 영향 모두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셋째, 빈곤과 비빈곤 가정의 부모양육스트레스가 명확히 다른 결과를 초래함을 증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부모 변인과 가정환경 자극 변인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선택적 영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모두를 고려하지 않고 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만을 분석하였다는데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 불일치가 자신의 심리적인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Brooks-Gunn, & Duncan, 1997)을 고려하면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빈곤의 영향이 성에 따라 다른 심리적 과정이나 대처를 유발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Gomulak-Cavicchio, Davies & Cummings, 2006). 마지막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역의 인과관계가 가능하다. 아동의 발달적 지체나 병리적 문제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왜곡시키고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Aber, Jones & Cohen, 2000).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델을 중

합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 참 고 문 헌

- 곽금주, 유제민, 김정미(2007). 빈곤 아동에 대한 보호요인과 위협요인 탐색: 만 3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1), 1-19.
- 김정미, 곽금주(2007). 3-6세를 위한 가정환경조사(EC-HOME) 척도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8(1), 115-128.
- 김정미, 신희선(2006). K-CDI아동발달검사. 도서출판: 특수교육.
- 서유경(2002). 빈곤아동과 비빈곤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경숙, 김현경, 신윤오(2000). 한국형 부모양육스트레스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11(1), 70-78.
- 황혜원(2004). 가정빈곤과 이를 예측하는 변인들이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9(1), 219-229.
- Aber, J. L., Jones, S. M., & Cohen, J. (2000). The impact of poverty on the mental health and development of very young children. In C. H. Zeanah Jr. (Ed.), *Handbook of infant mental health*, (2nd ed., pp. 113-128). New York: Guilford Press.
- Abidin, R. R.(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rbuckle, J. L.(2000). *Amos 4.0 User's Guid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radley, R. H. (1995). Environment and

- parenting. In M. H.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pp. 235-261). Mahwah, NJ: Erlbaum.
- Brooks-Gunn, J. & Duncan, G. (1997).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7(2): 55-71.
- Brooks-Gunn, J., Klebanov, P. K., & Liaw, F. (1995). The learning , physical, and emotional environment of the home in the context of poverty: The Infant Health and Development Program.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7, 251-276.
- Bugental, D. B., Olster, D. H., & Martorell, G. A. (2002). A developmental neuroscience perspective on the dynamics of parenting. In L. Kuczynski, *Handbook of dynamics in parent-child relationships* (pp. 25-48). Thousand Oaks: Sage.
- Caldwell, B. M., & Bradley, R. H. (2003). *HOME Inventory Administration Manual: Comprehensive Edition*. University of Arkansas at Little Rock
- Conger, R. D., Conger, K. L., Elder, G. H., Lorenz, F. O., Simons, R. L., & Whitbeck, L. B. (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 526-541.
- Conger, R. D., Ge, X., Elder, G. H., Lorenz, F. O., & Simons, R. L. (1994). Economic stress, coercive family process, and developmental problems of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5(2), 541-561.
- Conger, R. D., Patterson, G. R., & Ge, X. (1995). It takes two to replicate: A mediational model for the impact of parents' stress on adolescen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80-97.
- Duncan, G. J., Brooks-Gunn, J., & Klebanov, P. K. (1994). Economic deprivation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5, 296-318.
- Gershoff, E. T., Aber, J. L., Raver, C. C., & Lennon, M. C. (2007). Income is not enough: Incorporating Material Hardship Into Models of Income Associations With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5(1), 70-95.
- Gomulak-Cavicchio, B. M., Davies, P. T., & Cummings, E. M. (2006). The Role of Maternal Communication Patterns About Interparental Disputes in Associations Between Interparental Conflict and Chil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 757-770.
- Guerra, N. G., Huesmann, L. R., Tolan, P. H., Van Acker, R., & Eron, L. D. (1995). Stressful events and individual beliefs as correlates of economic disadvantage and aggression among urban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3, 518-528.
- Guo, G., & Harris, K. M. (2000). The mechanisms mediating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s intellectual development, *Demography*, 37, 431-447.
- Hofferth, S., & Philips, D. A. (1991). Childcare Policy research. *Journal of Social Issues*,

- 47(2), 1-13.
- Howes, C. (1988). Relations between early child care and school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4*(1), 53-57.
- Ireton, H. (1992). *Child Development Inventory, Manual*. Minneapolis: Behavior Science Systems.
- Linver, M. R., Brooks-Gunn, J., & Kohen, D. E. (2002). Family processes as pathways from income to young children's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8*(5), 719-734.
- Mussen, P. (1978).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4*(2), 185-186.
- Neisser, U., Boodoo, G., Bouchard, T. J., Boykin, A. W., Brody, N., Ceci, S. J., Halpern, D. F., Loehlin, J. C., Perloff, R., Steinberg, R., & Urbina, S. (1996). Intelligence: *Knowns and unknowns. American Psychologist, 51*, 77-101.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7). The effects of infant child care on infant-mother attachment security: Results of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68*, 860-879.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8). Relations between family predictors and child outcomes: Are they weaker for children in child care? *Developmental Psychology, 34*(5), 1119-1128.
- Petterson, S. M., Albers, A. B. (2001). Effects of poverty and maternal Depression on Early Child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Development, 72*, 1794-1813.
- Phares, V & Compas, B. (1990). Adolescents' Subjective Distress Over Their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5), 596-603.
- Ramey, C. T., & Ramey, S. L. (1998). Prevention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Early interventions to improve cognitive development. *Preventive Medicine, 27*, 224-232.
- Ramey, C. T., Yeates, K. O., & Short, E. J. (1984). The plasticity of cognitive performance: Insights from preventive intervention. *Child Development, 55*, 1913-1925.
- Rohner, R. P. (2004).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PARQ/CONTROL: Child(ShortForm)*. Retrieved from <http://vm.uconn.edu/~rohner>.
- Simons, R. L., Johnson, C., Beaman, J., Conger, R. D., & Whitbeck, L. B. (1996). Parents and peer group as mediators of the effect of community structure of adolescent problem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 145-171.
- Wasik, B. H., Ramey, C. T., Bryant, D. M., & Sparling, J. (1990). A longitudinal study of two early intervention strategies: Project CARE. *Child Development, 61*, 1682-1696.
- Whiteman, M., & Deutsch, M. (1968). Social disadvantage as related to intellectual and

language development. In M. Deutsch, I. Katz, & A. R. Jensen (Eds.) *Social class, race and psychological development*.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pp. 86 - 114.

Williams, L. J. & Podsakoff, P. M. (1989). Longitudinal Field Methods for Studying Reciprocal Relationships in Organizational Behavior Research: Toward Improved Casual Analysi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11*. 247-292.

Yeung, W. J., Linver, M. R., & Brooks-Gunn, J. (2002). Money matters for young children's development: Parental investment and family processes. *Child Development, 73*, 1861-1879.

---

1차 원고 접수: 2007. 7. 16

수정 원고 접수: 2007. 8. 12

최종게재결정: 2007. 8. 13

# The Relation of Poverty, Parent's Variances, Home Environment and Child Development on the 3-year-old Children

Keum-joo Kwak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Jeong-Mee Kim

The Center for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Jae-Min Yoo

Department of Liberal Arts  
Kangnam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ddress effects poverty, parenting style, parenting stress, and home environment on child development and to examine a functioning of variances. Participants consisted of 446, 3-year-old children from the Seoul area and Gyeonggi Province. Children were recruited from poor and non-poor neighborhoods, among 205 were children in poverty and 241 were children who were not. In this study, Analysis of Moment Structure (AMOS) was used to test the concordance of the combined equation structure model of approach that was theoretically appropriate to explain the process through which parenting behavior, parenting stress and home environment stimulation affect children in poverty. Consequently, a combined final model applied to both poor and non-poor groups showed that parents' stress, as a result of the effect of poverty, has negative effects on children's development. Home environment is associated with effects on parents' parenting behavior and shows that has direct effect on children's development. According to results from this study, future research on protective factors that operate in non-poor groups is suggested.

*Key words:* child poverty, parenting behavior, parent stress, home environment stimulation, path analysis